

ISU

2026 SPRING
VOL. 124



ANNIVERSARY
CELEBRATION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기념호

CHALLENGE 30
CHANGE 30

CONTENTS



COVER STORY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기념 엠블럼을 담았습니다. 정형화된 스퀘어에 상승의 화살표가 결합되어 사다리꼴로 확장된 도안은 변화와 도전의 지난 30년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갈 이수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04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기념사

06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기념식 현장 스케치

16 이수 헤리티지 갤러리

22 이수그룹 미래전략 & 핵심가치

32 고객사 축하 메시지

34 이수 큐브 퍼포먼스

36 이수 하모니

38 Back to 1996

노향택 기정(이수스페셜티케미컬 QC파트)
이선민 책임((주)이수 기획팀)

42 나는 Collector

오재욱 수석(이수스페셜티케미컬 영업2팀)
박세진 담당(이수건설 기획담당)
이하영 차장(이수앱지스 면역팀)
신주연 대리(이수앱지스 플랫폼팀)
한예지 대리(이수건설 인사총무팀)

48 ISU PLACE

이수의 30년 시공(時空), 작품이 되다
Staging

54 Focus & News

58 이수더지니어스

나도 혹시 천재일까? 뇌섹 이수인 소환!

62 이수 테이블

맛으로 누리는 꽃다발
- 생일상에 오른 떡

70 이수 간식 창고

간식 서프라이즈 - 우리 팀에게 쏘세요!

73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컬러링 응모작 소개

74 컬러링 테라피 및 엽서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26년 봄호 통권 124호

발행일 2026년 4월 30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이신유 02-590-6811

사보기자 이수화화(김신원-안민찬) 이수스페셜티케미컬(신선아-이하연) 이수페타시스(김태형-한수진) 이수건설(강나영) 이수시스템(서준혁) 이수창업투자(김경문) 이수앱지스(양예슬) 이수AMC(이홍휘)

제작디자인 LEE & LEE work shop 기획실장 이신유, 디자이너 유선영

인 쇄 LEE & LEE work shop

※이수그룹 사보는 친환경 FSC인증 펄프로 만든 용지를 사용해 제작합니다.

FSC인증은 국제산림관리협회가 만든 친환경 인증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 부여됩니다.

‘가치’를 넘어 ‘미래’로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수라는 이름 아래 하나 되어 걸어온
‘서른 해의 여정’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0년은 단순히 버텨온 시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재편되는 시장과 냉혹한 산업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이수다움’이라는 철학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수사보다 본질에 집중했고, 빠른 길보다 옳은 길을 택해왔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원칙이 지금의 이수를 만들었습니다.

이수의 역사는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쓰였습니다.

현장의 땀방울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묵묵한 지원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수는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30년은 여러분의 헌신이 쌓아 올린 ‘신뢰의 기록’ 그 자체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오늘의 30주년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강렬한 시작점’입니다.

과거의 이수가 ‘기본’을 지키며 스스로를 증명해왔다면,

앞으로의 이수는 그 단단한 뿌리 위에서 ‘전례 없는 미래’를 그려나갈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도, 기술의 진보도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원칙 위에 더 큰 가치를 창조하며,

누구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이수의 역사이자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과거가 자랑스럽듯,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수의 다음 여정은 더욱 찬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3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6. 4. 15.

이수그룹 회장 김상범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기념식

환희와 감동의 순간,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기념식 현장 속으로

이수그룹은 4월 15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룹사 사장단과 임직원 25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자리는 이수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념 엠블럼 공개를 시작으로 기념사, 히스토리 영상, 미래전략 및 핵심가치 발표, 시상과 축하 공연까지 이어진 그 뜨거운 축제의 현장을 기록합니다.



지금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엠블럼 조형물에 서명하는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위),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아래).



이수그룹의 사업 미래전략과
새로운 핵심가치를 선포하는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기념식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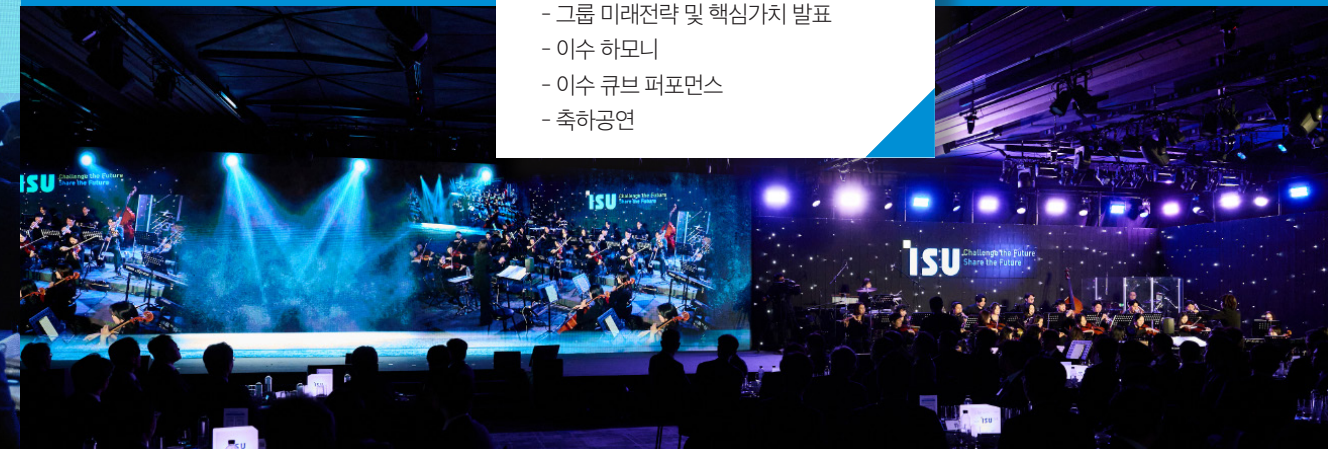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아쉬움 대신,
현장의 뜨거운 전율을 온전히 담았습니다.
이수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우리,
그 찬란한 순간으로
임직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념식 개요

- 일시: 2026년 4월 15일(수) 16:00~18:00
- 장소: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 하모니볼룸

■ 주요 식순

- 회장님 기념사
- 그룹 히스토리 영상 상영
- 그룹 미래전략 및 핵심가치 발표
- 이수 하모니
- 이수 큐브 퍼포먼스
- 축하공연



이수그룹의 출범 연도 1996년, 같은 해 등장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주제곡 연주 (The M.C Orchestra | 지휘자 김문정 음악감독).



2030년 '매출 6조 원·시총 25조 원' 달성을 향한 대도약을 선언하는 김세민 대표이사.



이수의 공간과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뮤직비디오 '이수 하모니'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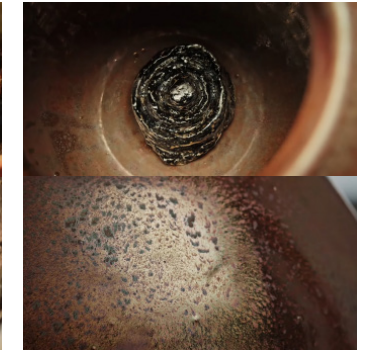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기념식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임직원들.



흑자 도예가 김시영

강원 홍천·철원, 제주·우도 등 다양한 지역의 흙을 모아 1350도의 고온에서 제작된 '흑자 달항아리'로, 서로 다른 시간과 재료의 결합을 통해 이수인들의 헌신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작품.



항아리 내부 3단 입체 구조를 통한 이수그룹 10년·20년·30년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구현. 떠오르는 해의 느낌을 바탕으로 '등양(登陽)' 의미를 담아 지속적 성장 및 미래 확장성 상징.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기념 한정품 '흑자 달항아리' 공개와 함께,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오른쪽)의 헌신과 리더십에 대한 존경을 담아 임직원을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한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왼쪽).



이수의 핵심가치 '신뢰·도전·공감'을 실천하며 그룹의 미래를 밝힌 10인의 주역들.



미래의 이수인상

- 박지훈 팀장 ((주)이수 HR팀)
- 김지은 수석 ((주)이수 기획팀)
- 최명학 수석 (이수스페셜티케미컬 공정팀)
- 장재혁 기감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생산파트)
- 김형우 선임기정 (이수페타시스 생산1팀)
- 조은호 차장 (이수건설 외주팀)
- 김현근 수석 (이수시스템 AX팀)

신뢰의 이수인상

- 박에스터 과장 (이수애플즈 기획팀)

도전의 이수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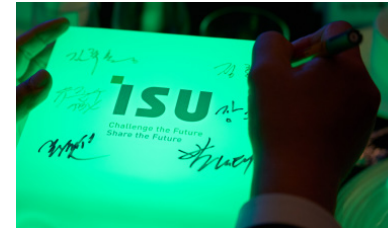
- 곽원규 수석 (이수화학 NP생산팀)

공감의 이수인상

- 황시내 책임 (이수페타시스 영업팀)



'이수 큐브 퍼포먼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과 그룹사 사장단.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기념식 4분 하이라이트
영상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테(Libelante)



소프라노 임선혜



지휘자 김문정 음악감독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30주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특별 무대.
김문정 음악감독이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섬세한 연주와
천상의 음색이 어우러지며
시공간을 초월한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30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이름들

이수의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엔딩 크레딧을 가득 채운 이름 하나 하나는
 이수의 어제를 증명하고, 내일을 꿈꾸게 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를 함께 넘던 동료의 이름이며,
 때로는 성장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 웃었던 우리의 이름입니다.
 지난 30년을 함께 일귀은 7천여 명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언제나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이름들과 함께, 이수의 다음 30년도 이어가겠습니다.

30개의 이야기, 내일의 비전이 되다

ISU HERITAGE GALLERY



지난 30년, 이수그룹의 여정은
도전과 성취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수 헤리티지 갤러리'는 그 속에서 태어난
30개의 기록과 사물들을 통해 이수그룹의
30년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시된 트로피와 연구노트, 그리고 혁신의 제품들은
단순한 사물을 넘어, 각 시대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이수그룹 '시간의 조각들'입니다.

세상이 보내온 응원과 박수를 기억하며
우리는 이제 이 '30개의 창'을 통해 더 큰 내일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기록이 빛어낸 자부심은
이수그룹의 미래를 이끄는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 본 지면에는 주요 사물 24점을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이수 헤리티지 갤러리를 관람하는 이수스페셜티케미컬 김성민 부회장.



전시된 기록물들을 세심히 살피고 있는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왼쪽)과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오른쪽).



이수 헤리티지의 가치를 공유하며
이수 구성원으로서 역사와 성취에
깊이 공감하고 자부심을 나누는 임직원들.





UCYCLE 프로젝트 | 2022~2024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의 주도로 '얼간'과 협업해 세계 최초로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직보호망을 활용해 가방을 제작, 뉴욕·파리·서울 패션위크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또한 '지용김'과 진행한 이수화학 폐근무복 업사이클링 제품은 해외 명품 편집숍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스페이스 이수 팸플릿

| 2020~2026

이수그룹은 2020년 6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본사 로비를 정비해 예술공간 '스페이스 이수'를 오픈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누구나 동시대 미술과 문화를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기회를 마련하며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재단 스폰서십 체결 기념 사인볼 | 2025

이수그룹은 2025년 유소년 야구 인재 육성을 위해 류현진재단과 스폰서십을 체결했습니다. 유소년 야구 지원, 자선 골프대회, 희귀난치병 환자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하며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과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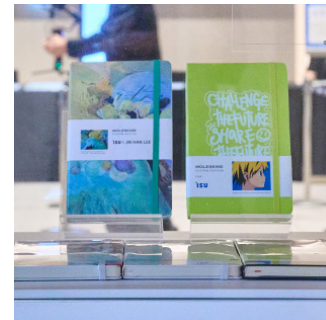
이수그룹 KLPGA 챔피언십 트로피 | 2017

이수그룹은 2015년부터 3년간 메이저 대회인 '이수그룹 KLPGA 챔피언십'을 개최했습니다. 안신애, 배선우 등 당대 최고 선수들이 거쳐 간 꿈의 무대였으며, 본 트로피는 2017년 제39회 대회에서 장수연 프로가 우승을 차지하며 들어 올린 영광의 트로피입니다.



이수챌린지페스타 3X3 2025 우승 트로피 | 2025

이수그룹은 올해 5회째 국내 최대 규모의 3X3 농구 페스타인 '이수챌린지 페스타 3X3'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아트&컬처를 융합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페스타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2025년 대회는 아마추어 농구 대회 최초로 방송 생중계를 진행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수그룹 다이어리·캘린더

| 2021~2026

이수그룹은 2021년부터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다이어리와 캘린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옥승철 작가를 시작으로, 리너스 반 데 벨데 작가, 안규철 작가 등과 콜라보했습니다. 또한, '몰스킨'과 협업해 다이어리·캘린더 제작을 이어왔습니다.



이수그룹 공채 1기 입문과정

| 1996

이수그룹은 1996년 공채 1기 신입사원을 선발했습니다. 당시 7천여 명 원서 접수, 5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수그룹은 함께 성장할 가능성 하나를 믿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조직이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ISU Vision 2007 선포

| 2003

이수그룹은 2003년 <ISU Vision 2007>을 선포하면서 '성실, 도전, 고객만족'의 핵심가치와 'Challenge the Future, Share the Future'의 슬로건을 정립했습니다. 그룹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 된 핵심가치는 이제 신뢰, 도전, 공감으로 리뉴얼 되었습니다.



이수그룹 경영목표 전략합의서

| 2004

이수그룹은 2004년 그룹 전략합의서를 최초로 체결했습니다. 당시 이수화학, 이수페타시스 등 9개 계열사가 경영목표를 보고하고 승인받았으며, 이는 그룹 경영목표의 핵심지표로서 현재까지 매년 작성되고 있습니다. 2004년 전략합의서의 원본입니다.



이수화학 실험노트

| 1994

1994년 당시 이수화학 연구원들의 신규 아이템 실험노트(연구 보고서)입니다. 모든 연구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록이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연구가 막혔을 때 해로를 찾아 주기도 합니다. 현재의 이수화학을 있게 해준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1996년 한마음 체육대회 우승 트로피 |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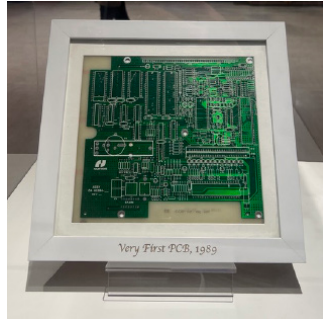
1996년 시작된 이수 임직원들의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이수화학이 축구 종목에서 우승한 트로피입니다. 당시 축구 이외에도 차전놀이,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단합을 이뤘습니다. 2017년까지 이어졌던 이 화합의 축제는 올해 다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수화학 5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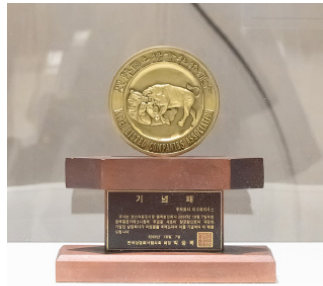
| 2019

이수화학은 2019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수화학 50년 사사'를 발간했습니다. 기념행사에서는 50년 역사를 담은 '사사 봉정식'과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ISU Vision 2025'를 발표하며, 특수정밀화학 기술 경쟁력 강화 등 100년 기업을 향한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1호 PCB
| 1989

이수페타시스가 1989년 PCB 사업을 개시하고 첫 생산한 '1호 PCB' 제품입니다. 작은 기판으로 시작된 도전과 기술력은 이후 고다층, 고성능 PCB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AI 시대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핵심 부품 공급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상장회사 기념패
| 2003

2003년 이수페타시스는 한국증권거래시장에 주권을 새로이 상장함으로써 국민의 기업인 상장회사가 되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상장 당시 액면가 1,000원이었던 이수페타시스 주식은 현재 10만원 수준을 육박하며 기업의 성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CISCO Supplier of the year' 수상 | 2008

2008년 당시 CISCO는 이수페타시스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핵심 고객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위상과 인지도를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본 상은 해외 고객 최초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으며, 이는 이수페타시스가 글로벌 PCB 업계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수건설 브라운스톤 런칭 기념물
| 2002

이수건설은 2002년 10월 '고품격 주거공간'이라는 모토로 '브라운스톤'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브라운스톤'은 미국 동부지역 상류층 주택에 붙여진 명칭이며, 뉴욕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브라운스톤은 이수건설 대표 브랜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 2011

이수페타시스의 초고다층 인쇄회로기판은 2011년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수출 증대 및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지식경제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수출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국가 공인 제도입니다.



2017 이수그룹 화장배 야구대회 우승 트로피 | 2017

2017년 이수그룹 화장배 챔피언십 시리즈 우승 트로피입니다. 이수그룹은 스포츠를 통한 도전 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야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17년 대회에서는 당시 약체로 평가되는 이수건설이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끝에 우승을 차지하며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이수건설 국토교통부장관 브랜드 대상 수상 | 2014

이수건설은 '2014 대한민국 대표아파트' 시상식에서 '평택 브라운스톤 험프리스'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인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가 대부분 시공능력 상위 10개사인 가운데 수상은 한 해 동안 소비자, 건설업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수시스템 IBM 비콘 어워드 노미네이트 기념패 | 2009

이수시스템은 2009년 'IBM Beacon Award'의 SaaS Innovation 부문에 공식 노미네이트되었습니다. 본 상패는 SaaS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차별화된 솔루션 역량을 IBM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념물로, 이수시스템의 기술 경쟁력과 성과를 상징합니다.



이수창업투자 투자 영화 대표작
| 2004~2023

이수그룹은 문화 콘텐츠와 유망 벤처 투자로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 이수창업투자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태극기 휘날리며(2004), 추격자(2008), 명량(2014) 등 흥행 영화에 선구적으로 투자했고, 국내 문화 사업의 발전에 이바지 해왔습니다.



이수앱지스 신약 후보물질 연구노트 | 2002~2006

이수그룹은 2001년 이수앱지스를 창립하고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신약 연구개발에 도전했습니다. 이 노트는 창립 초기 난치성 암질환 치료용 항체 신약 후보물질(SU101)과 자가면역 및 염증 질환 치료용 신약 후보물질(SU201)의 연구노트입니다.



이수앱지스 제품 (애브서틴, 파바갈, 클로티넵, 페부레인) | 2013~2015

이수앱지스의 주력 제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한 고서병 치료제 '애브서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 국산 파브리엔 치료제 '파바갈', 자체 기술력으로 완성한 국내 1호 항체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클로티넵', 평생 관리가 필요한 요소회로장애 환자들을 위한 '페부레인'입니다.



수출의 탑 | 2011~2025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12월 5일 무역의 날, 1년 동안 수출 성과를 거둔 기업에게 수여하는 수출의 탑 트로피입니다. 이수그룹의 수출의 탑 수상은 회사의 규모와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성과로 글로벌 산업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정표였습니다.

CHALLENGE 30 CHANGE 30



이수그룹의 사업 미래전략과 새로운 핵심가치를 선포하는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

지난 4월 15일,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기념식에서 김세민 대표이사는 'Challenge & Change'를 화두로, 2030년 그룹 매출 6조 원, 시가총액 25조 원 달성이라는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확실한 존재감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차세대 배터리, AI 고성능 하드웨어, 바이오와 헬스케어를 3대 축으로 펼쳐질 이수의 미래 전략과 신뢰·도전·공감의 새로운 핵심가치. 이날 발표한 전문을 공개합니다.

이수그룹, 2030년 '매출 6조·시총 25조' 목표 미래 향한 대도약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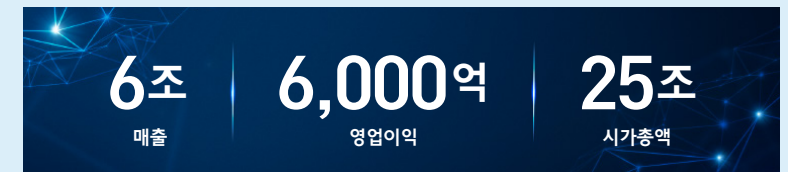
지난 30년 동안 이수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기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자부심을 현실로 만들어낸 실행력. 그것이 지금의 이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취를 넘어, **더 높은 차원의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Challenge & Change!!

이 기준은 우리가 오랜 시간 지켜온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산업 현장에서 축적해 온 경험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산업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며 기업의 경쟁 방식 역시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수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도전하고 변화하며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Challenge**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향한 과감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Change**는 기존의 질서를 넘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는 변화**입니다.

앞으로 이수는 기술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혁신을 이끄는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더 큰 미래를 향한 첫 번째 이정표로, 2030년의 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 매출 6조 원, 영업이익 6,000억 원, 시가총액 25조 원.

이 숫자는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수는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에서 **압도적인 성장과 혁신**을 만들어 내고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확실한 존재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6조라는 숫자는 단순한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더 큰 미래를 향한** 분명한 도약의 기준입니다.

이수그룹 미래전략 & 핵심가치

우리가 이미 쌓아 온 탄탄한 사업 기반과 검증된 경쟁력이 있기에, 충분히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목표입니다. 기존 사업만으로도 이수의 매출은 4조 원을 달성할 것입니다. 특히 이수페타시스의 생산 능력 확대, 그리고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핵심 소재 증설은 이수의 성장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M&A와 투자를 통해 6조 원 규모의 외형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의 도약을 이끌 3대 핵심 축

첫 번째 축은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Li₂S) 기술을 중심으로 이수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끌며 글로벌 에너지 산업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축은 AI 고성능 하드웨어입니다. 데이터가 모든 가치의 원천이 되는 시대. 이수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핵심 인프라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특히, 옴티컬 PCB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독보적인 AI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은 바이오 및 헬스케어입니다. 이수는 독자적인 항체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 신약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안티에이징 헬스케어 솔루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수가족 여러분, 앞으로 이수는 단순한 기업들의 집합을 넘어 미래 가치 창조의 중심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격변의 시대를 누구보다 먼저 읽고,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을 통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수그룹의 핵심 성장 전략을 발표 중인 (주)이수 배준일 전략담당.

선언을 넘어 현실로, 3가지 핵심 성장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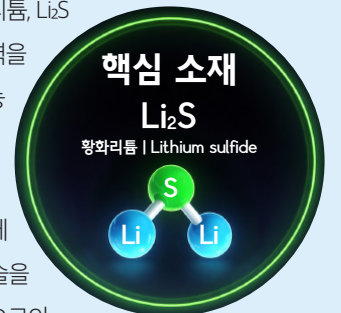
이수그룹의 성장 목표와 3가지 핵심 전략 축에 대하여 각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사람을 닮은 외형과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율적인 동작으로 큰 화제가 된 로봇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휴머노이드 기술의 중심에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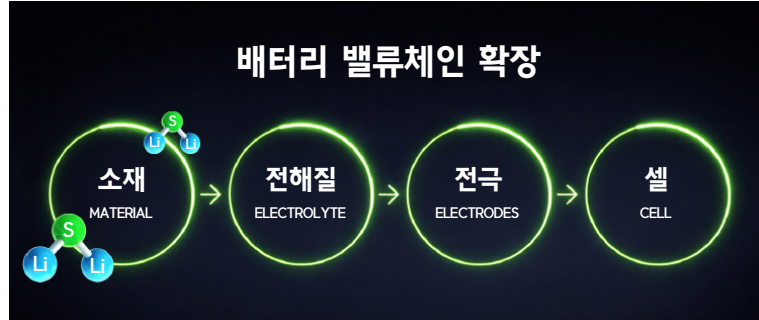
이수의 첫 번째 핵심 축은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이수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되는 황화리튬, Li₂S 공정 개발과 생산에서 글로벌 선두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Li₂S는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수는 오랜 기간 축적한 화학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Li₂S의 품질 안정성과 생산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전고체 배터리 산업의 더 넓은 영역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배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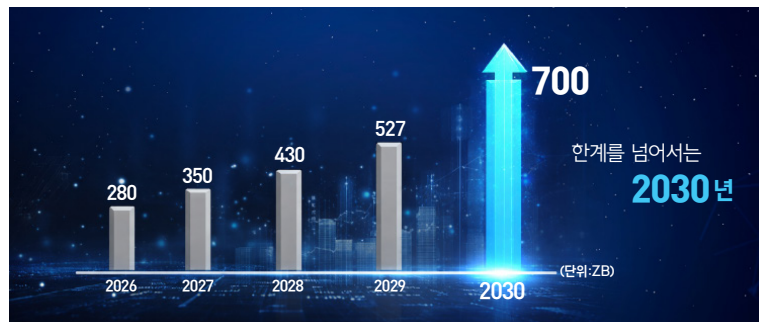


단순히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을 넘어 **소재 → 전해질 → 전극 → 셀** 이어지는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서 이수 그룹의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소재 개발을 넘어 배터리 산업 전반의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특히 **환경 부하는 낮추고 제품의 생애 주기는 더욱 길어지는**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축은 **AI 고성능 하드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챗지피티나 제미니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심지어 술자리에서 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AI를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AI가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데이터 전송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수 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다층 PCB 생산 기술**을 통해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손실 없이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멀티 라미네이션 공법**과 **HDI 공법**은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이수 그룹의 핵심 기술 경쟁력입니다.



유수의 전망 기관들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데이터 생성량은 현재의 3배 그 이상으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을 병목 없이 처리하기 위

AI 고성능 하드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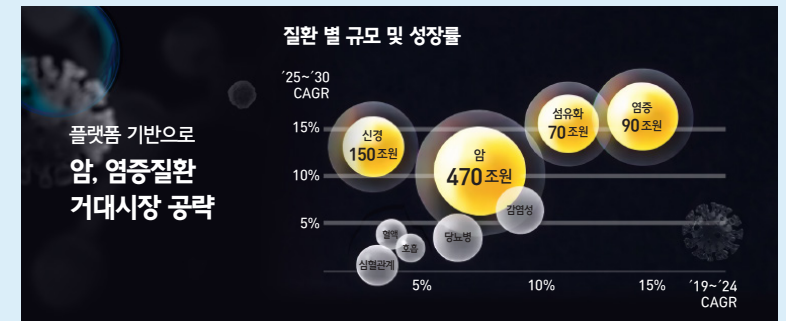
바이오 & 헬스케어

해서는 기존 구리 도선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수는 구리 도선의 한계를 넘어 광자를 통한 데이터 전송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리 도선을 통한 신호 전송 경로를 최소화한 **옵티컬 PCB**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데이터 전송 기술의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축은 **바이오와 헬스케어**입니다.

이수는 한국 항체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고셔병과 파브리병 같은 유전적 희귀질환 치료제를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해외 환자들에게도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수가 축적해 온 항체 기술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20년간 축적한 항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How to Win 전략**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차세대 항체 플랫폼**입니다. 기존 항체 치료제가 가진 낮은 반응성이라는 장벽을 넘기 위해 항체 접합부를 더욱 좁고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는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앱지스의 신약 개발 속도와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이오 산업에서 플랫폼은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단일 후보물질의 성공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암과 염증 질환**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항체 모달리티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에서 앱지스의 파이프라인은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장은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이수 바이오 사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안티에이징 분야의 헬스케어 솔루션**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수는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건강 그 이상의 삶, 그 풍요로움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수그룹 미래전략 & 핵심가치

이수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광자 기반 데이터 전송 기술, 항체 치료제 플랫폼과 안티에이징 헬스케어까지 우리의 미래 성장 전략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이수가 미래 산업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수많은 산업 변화 속에서도 기술과 도전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더 큰 시장, 더 높은 기술, 더 빠른 변화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수의 다음 성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수의 성공 방정식



이수그룹의 새로운 핵심가치(신뢰·도전·공감)를 선포하는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

회사의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 전략뿐 아니라 **가치와 경영 철학을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어떻게 일하는 방식의 기준을 세우느냐가 조직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성실, 도전, 고객 만족**이라는 가치는 이수를 하나로 묶는 기준이었고 끊임 없이 성장하게 만든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은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고, 첨단 기술은 일의 의미 자체를 바꾸고 있으며, 구성원과 조직의 기대 역시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공의 방정식 자체가 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만들어내는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 역시 함께 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조직이 함께 공유할 새로운 가치**입니다.

이제 이수는 출범 30주년을 맞아 **신뢰, 도전, 공감**이라는 새로운 핵심가치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앞으로 이수가 만들어갈 **새로운 성공 방정식**이 될 것입니다.



이수그룹의 핵심가치를 설명하는 (주)이수 EX팀 이진우 책임.

성장을 현실로 만드는 원칙과 실행의 기준, 신뢰·도전·공감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조직문화 흐름을 보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통제 중심의 조직에서 자율 중심의 조직으로, 그리고 위계 중심의 구조에서 협업 중심의 조직으로 일하는 방식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력 있는 조직은 누군가가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며 서로 협력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했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자율을 원하고, 동료들이 지지해 주는 도전을 원하며, 투명한 소통과 존중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변화는 분명합니다. 이수의 내일은 구성원 모두가 주도적으로 몰입하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며 함께 성장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수의 다음 30년을 위한 새로운 핵심가치 모델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핵심가치는 단순한 조직 문화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게 될 가치관이자 앞서 말씀드린 이수의 방향과 성장 전략을 현실로 만들어줄 원칙과 기준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주도적 몰입
Lea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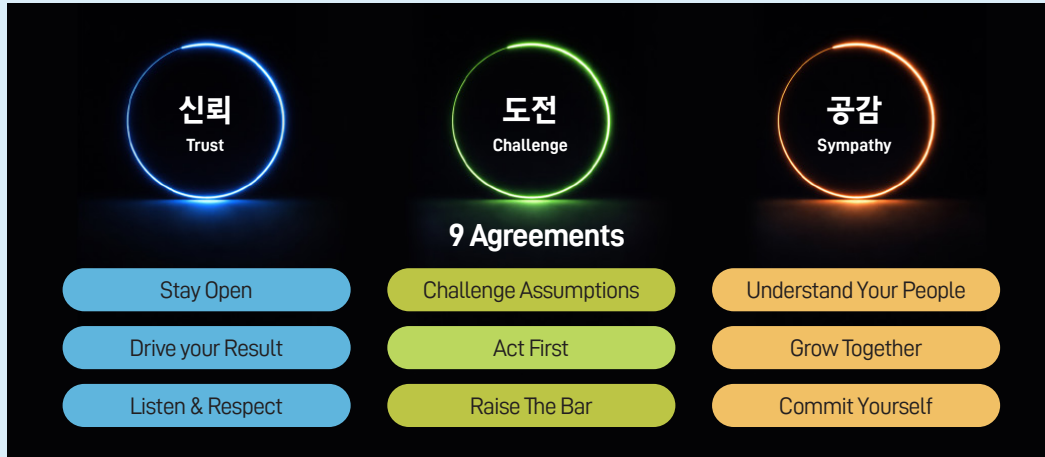
자율과 창의
Creativity



더 높은 성과
Result



함께 성장
Grow up



첫 번째 핵심가치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책임과 행동으로 증명하는 신뢰**입니다.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되고 약속한 목표는 끝까지 완수됩니다. 사실에 기반해 정직하게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조직은 더욱 강해지고 성과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 핵심가치는 **도전**입니다.

도전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익숙한 방식에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빠르게 시도하고 더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 그것이 이수가 말하는 **도전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핵심가치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동료를 내부 고객으로 생각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유연한 협업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조직, 그것이 이수가 만들어 갈 공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가치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 실현되어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동 원칙으로서 **9 어그리먼트(9 Agreements)**를 마련했습니다. 핵심가치가 우리의 가치관이자 신념이라면, 이 9 어그리먼트는 그 신념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자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 문화는 변화의 선언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뢰와 도전 그리고 공감의 가치, 9 어그리먼트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이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신뢰

도전

공감

우리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룹 **CoC(Code of Conduct)**를 수립했고, CoC는 업무의 순간마다 행동 원칙에 따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구체적인 실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들이 쌓일 때 조직은 달라지고 그 변화들이 모일 때 기업의 미래 역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나 스스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뢰하는 조직이 더 단단하다는 것을, 도전하는 조직이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그리고 공감하는 조직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수는 이 세 가지 핵심가치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의 변화를 시작합니다.



Challenge & Change, 도전과 변화의 새로운 여정

우리는 이수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핵심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AI 고성능 하드웨어,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뢰, 도전, 공감이라는 새로운 핵심가치까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Challenge & Change!

도전하지 않는 기업은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변화를 멈춘 기업은 산업을 선도할 수 없습니다. 이수는 앞으로도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더 과감히 도전하고

더 빠르게 변화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다음 30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의지로 완성된 상징적인 퍼포먼스 30개의 빛이 하나의 미래로 이어지다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기념식 '이수 큐브 퍼포먼스' 기념사진 촬영 모습. 김상범 회장(가운데 좌측)과 김세민 대표이사(가운데 우측).

각 테이블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수그룹 전체의 방향으로 이어진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30개의 테이블, 30명의 대표, 30개의 큐브가 모여
이수그룹 출범 3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다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걸어온 시간은
하나의 의지로 모였으며,
그 결합은 이수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수의 미래를 밝힌 하나의 화음

ISU Har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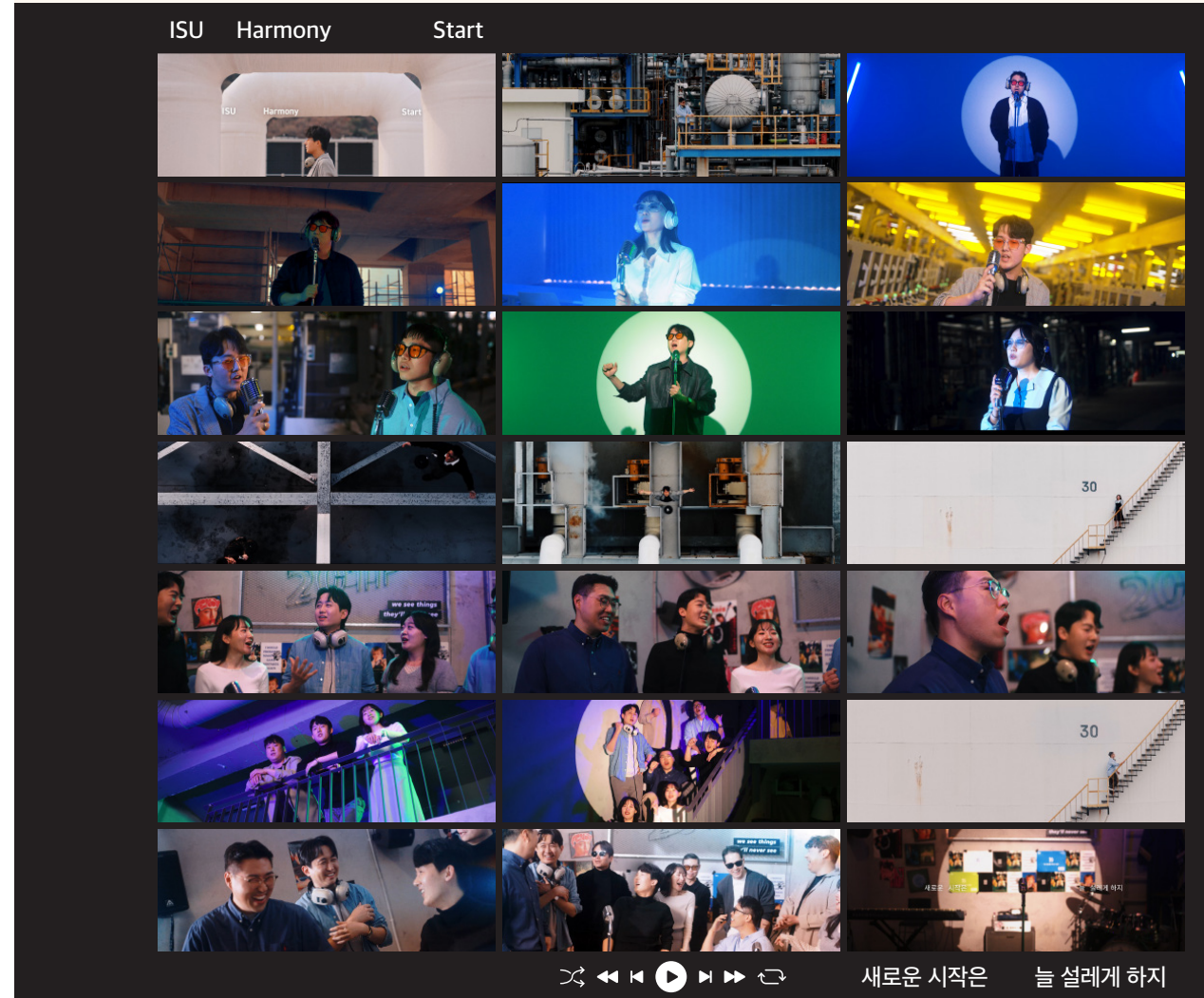
이수의 공간에서
 이수의 얼굴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목소리.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발걸음에 바치는
 이수의 작은 찬가입니다.
 반포에서 마곡, 판교, 대구, 온산까지
 서 있는 자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이수'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화음으로 내일의 문을 함께 엽니다.

어제를 뒤로하고 다시 출발선에 선 당신,
 당신이 써 내려갈 새로운 시작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이수 하모니 메이킹 필름



STARRING

- 김문환 수석 ((주)이수 경영지원팀)
- 김진한 책임 (이수시스템 HR서비스팀)
- 배준용 책임 (이수페타시스 SCM팀)
- 심혜빈 사원 (이수애플즈 해외영업팀)
- 임현지 선임 (이수화학 재경팀)
- 전지윤 선임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안전환경팀)
- 정기정 과장 (이수건설 구리갈매나)

MAKING BY

- (주)이수 브랜드전략팀
- Location Hunter 이신유 책임
- Scripter 김정희 수석
- Casting Director 김현중 책임
- Assistant Director 이흥권 책임
- Screenwriter, Art Director & Director 조요한 팀장

Back to 1996



이수그룹 출범, 그 해 나는

지난 호, <Back to 1996>을 통해
수많은 기억의 서랍이 열렸습니다.
1996년, 이수그룹이 새로운 이름으로
힘찬 첫발을 내디뎠던 그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출발선을 박차고 나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건너,
투박하지만 눈부셨던
그해의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노항택 기정
(이수스페셜티케미컬 QC파트)

1996년은 처음으로 '내 자전거'를 갖게 된 해

두 발 자전거의
페달을 처음 밟았던 두근거림



4년 동안 돼지 저금통을 가득 채워서 향한 곳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물로 받았던 빨간 돼지 저금
통을 가득 채우는 데에는 4년이 걸렸고, 그렇게 모
은 돈은 12만 원이었습니다. 당시의 제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에,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쉽게 결
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자전거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동네 형에게 물려받은 어린이용 두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성인용 자전거를 직접 구
매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동네 자전거 가게로 가서 자전거
를 고르던 날의 기억은 지금도 비교적 선명하게 남
아 있습니다. 그날 저는 모아둔 돈 12만 원을 모두
내고 생애 첫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타기에는 다소 큰 자전거였지
만, 발이 겨우 닿을 정도의 자전거를 타고 동네 곳
곳을 다니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제 돈으로 처음 구입한 물건이었기에 애
착이 컸고, 그만큼 오래도록 아끼며 사용했습니다.
그 자전거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함께하다가 결국
수명을 다했지만,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 얻
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의미 있는 기
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선민 책임
(주)이수 기획팀

1996년은 처음으로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입학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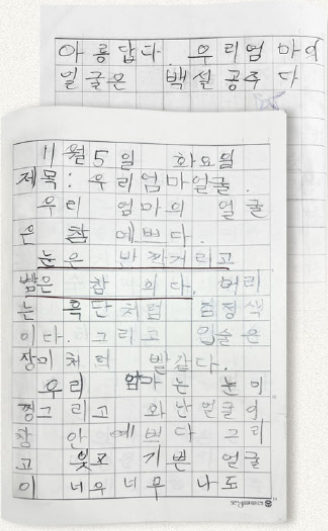


나의 모든 기록을 세상 밖으로 보내준 아버지의 사랑

초등학교 1호 입학생 일기장을 보니...

1996년, 우리 그룹이 새로운 뜻을 올리던 그해에 저는 조금 특별한 '1호'가 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초등학생'으로 입학한 것이죠. 어른들에게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익숙하겠지만, 저에게 1996년은 '초등학교'라는 이름과 함께 인생의 첫 사회생활이 시작된 해입니다. 그룹과 제가 나란히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출발선에 섰던 그 시절, 서툰 글씨와 투박한 그림에 30년 전의 추억을 공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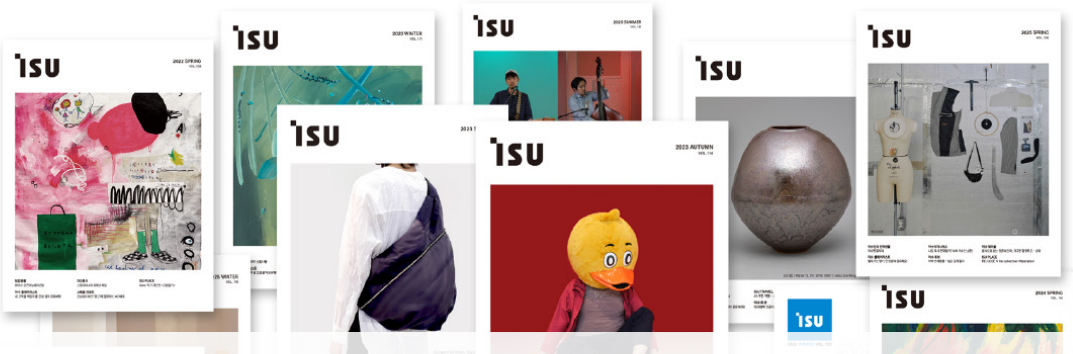
일기장을 펼쳐보니 엄마를 향한 열렬한 찬사가 눈에 띄더군요. 8살의 저는 엄마를 '백설공주'에 비유하며 반짝이는 눈, 하얀 피부, 빨간 입술을 정성껏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압권은 일기 끝에 덧붙여진 솔직한 한마디였습니다. "눈 찡그리고 화난 얼굴은 참 안 예쁘다." 어린 마음에 그저 찡그린 얼굴이 미웠던 꼬마는, 어느덧 근심 어린 엄마의 표정에서 걱정을 읽어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걱정만 할 뿐 정작 엄마를 자주 들여다보지 못하는 스스로를 반성하게 됩니다.



반면 아빠에 대한 기록은 사뭇 실용적(?)입니다. 동생과 나를 잘 돌봐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신다는 칭찬이 주를 이루죠. 외모 칭찬은 단 한 줄도 없는데, 함정은 제가 엄마보다 아빠를 쏙 빼닮았다는 사실 😊 한술 더 떠서 "모르고 한 일이나 조금 잘못된 걸 많이 야단치신다. 나는 그게 참 마음에 안 든다"며 아빠에 대한 불만을 당당히 적어놓은 대목에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 6년 차가 되어 독립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아빠를 먼저 찾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빠는 저의 영원한 '맥가이버'입니다. 야단맞기 바빴던 꼬마는 이제 아빠와 회사 고민을 나누는 대화 상대가 되었고, "맛있는 걸 사주는 아빠가 좋다"던 일기 속 문장은 이제 "부모님께 더 맛있는 걸 많이 사드려야지"라는 다짐으로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소중한 추억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일기와 그림 하나하나를 소중히 정리하고 보관해 주신 분이 바로 아빠였거든요.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기록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룹 출범 30주년 덕분에 1996년 '초등학교 1호 입학생' 시절로 행복한 시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최고였던 어린 날을 지나 부모님께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는 직장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가족과 그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는 중입니다. 지난 30년이 가족의 헌신과 그룹의 열정으로 가득했다면, 앞으로는 제가 받은 사랑과 에너지를 다시 나누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과 그룹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하며, 저의 다음 일기장에도 멋진 성공의 기록들이 가득 차길 기대해 봅니다.



나는 Collector

이수의 시간을 애정으로 간직해 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난 호의 물음에 답하며,
각자의 공간에 소중히 보관해 온 이수의 시간들을
꺼내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랜 종이 위에는 그룹의 찬란한 궤적뿐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 호흡해 온 임직원 여러분의
여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누구보다 오래 곁에서 지켜본 'Oldest ISU 상',
가장 많은 기록을 모아온 'ISU Archive Volume 상'의 수상자와
사보에 얽힌 각별한 애정과 사연을 전해주시는
세 명의 응모자를 함께 소개합니다.



Oldest ISU

오래된
사보
보유자



오재욱 수석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영업2팀)

사보에 아내 자랑하던 팔불출 신입사원, 어느덧 25년 차 이수인

2000년 8월에 이수화학 기획실 인재개발팀으로 입사한 게 엇그
제 같은데 벌써 25년이 지났네요.故 김준성 명예회장님께서 이수
그룹을 위한 연수원을 건립한다고 하셔서 동아제약 연수원에서
교육담당자였던 제가 이수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룹 공채 교육 진행부터 시작해서 VISON 2007 전파교육의 사내
강사까지 교육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룹 내 내부 직원들
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만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그때 당시 (주)이수 대표이사님께
이수엑사캠 영업으로 시간전보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회사에 계신 김성민 부회장님께서 당시의 제 간곡한 맘을 읽
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한길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올 수 있었
습니다.

입사한 다음 해 봄호 이수글밭에 글을 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
고, 지금 우리 가족 내무부 장관이신 아내와의 연애와 결혼까지의
러브스토리를 밝히자 사내에서 팔불출이라고 놀림(?)을 받았던
기억도 나네요

작년 OTT에서 인기 드라마였던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떠오릅니다.

“명심해. 대기업 25년차 부장으로 살아남아서,
서울에 아파트 사고, 애 대학까지 보낸 인생은...
위대한 거야.”

감사합니다.



2001년 봄호





박세진 담당
(이수건설 기획담당)

ISU Archive Volume



손때 묻은 사보 32권, 그 안에 담긴 나의 이수 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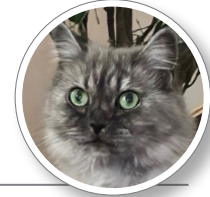
2005년에 입사해 정신없이 지내온 시간이 사보 32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니고 있는 가장 오래된 2012년 신년호부터 최근호까지, 완벽한 컬렉션은 아니지만 한 권 한 권 손때 묻은 사보들을 다시 펼쳐보니 그때의 기억과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새삼 감회가 깊어집니다.

분명 그룹 내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사보를 소중히 간직해 오신 저보다 더 대단한 수집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룹 출범 30주년이라는 큰 잔치에 제가 모아 온 이 작은 기록들이 축하의 의미로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서른두 권의 사보가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자부심이 되었듯, 앞으로 쓰일 이수그룹의 새로운 역사도 우리 모두에게 가슴 벅찬 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룹의 30주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하영 차장
(이수앱지스 면역팀)

매 호마다 특징 있는 표지에 모으는 재미, 추억으로 남긴 사보들



집에 모아두었던 이수 사보 사진을 올려봅니다. 처음엔 계속 부모님께 드려서 입사 초반 시절의 사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2023년부터는 저만의 사보 컬렉션을 꼭 모아 두고 있습니다. 사보 안의 내용도 재미있지만, 특히 표지 사진이 매 호수마다 특징 있고 멋있어서 모아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의 사보에는 저의 사랑스러운 반려 고양이 '먼지'와 '하쿠'의 사연이 지면에 실려 저에게는 더욱 각별하답니다! '먼지'와 '하쿠'가 사보에 데뷔한 뜻깊은 호수라, 소장용으로 특별히 여러 권을 쥘어두었지요.



오랜 시간 모아오신 선배님들에 비하면 몇 권 안되는 양이라서 후보에 오를 지 모르겠지만 사보를 향한 제 애정만큼은 듬뿍 담아 그래도 한번 도전해 봅니다! 이수그룹 출범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멋진 표지와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제 책장을 가득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신주연 대리
(이수앱지스 플랫폼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추억이 되는 특별한 사보

사보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보를 향한 애정으로 이번 이벤트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수의 얼굴과 이야기가 담긴 사보를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이수 가족들의 다채로운 얼굴과 이야기를 만나는 순간이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수앱지스 사우분들의 글을 보면 반가워서 더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118호는 제가 응모한 사연으로 팀이 함께 소개된 호라서 더 특별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팀원들을 볼 때마다 그때의 즐거웠던 분위기와 기억이 떠올라 사보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추억이 된다는 걸 느낍니다. 이처럼 사보는 저에게 있어 단순한 회사의 기록을 넘어, 동료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간직해 둔 '추억의 앨범'과도 같습니다. 비록 권수는 적지만, 차곡차곡 모아온 사보와 함께 이번 이벤트도 참여해 봅니다!



한예지 대리
(이수건설 인사총무팀)

다이어리는 버려도 사보는 꼬박꼬박, 그 시작의 기억을 간직하다

2013년에 발행된 사보 73호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제 자리 서랍 한 편에 놓여 있던 사보였습니다. 현재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입사 초기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직 많은 일이 많지 않았던 그때, 서랍 속 사보를 꺼내어 정독하며 우리 회사에 대해 알아가던 풋풋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다 쓴 업무용 다이어리는 과감히 정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보들만큼은 왠지 모르게 입사 당시의 설렘과 초심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 같아 자리를 이동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계속 보관하며 챙겨 왔습니다. 그렇게 잘 간직해 온 사보로 그룹 출범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가장 오래된 사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의 시작을 함께해 준 이수그룹의 뜻깊은 서른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태동, 2026

이수의 30년 시공(時空), 작품이 되다 Staging

이수그룹의 문화예술 공간 '스페이스 이수'는

2026년 4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기념전 《스테이징(Staging)》을 개최합니다.

김태동, 이요나 작가에게 콘셉트를 제안해 완성한 이번 전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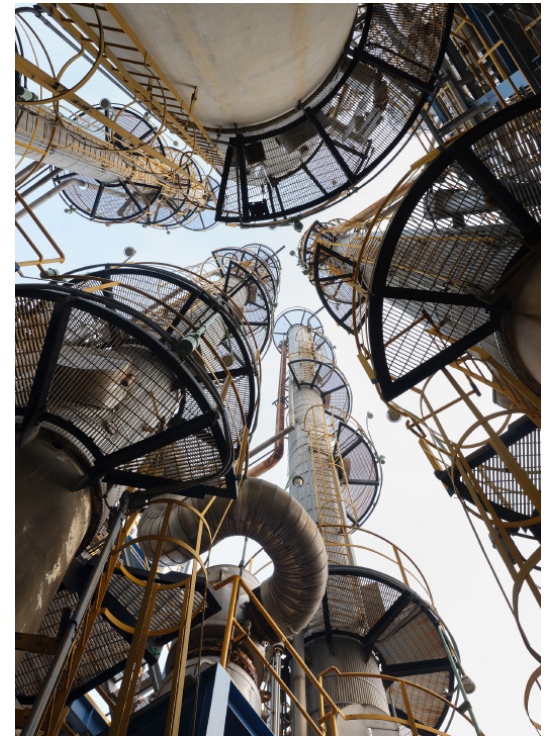
역사와 성과를 단순히 나열하고 기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설치미술과 퍼포먼스를 아우르는 새로운 기획을 선보입니다.

이수그룹의 현주소를 예술적, 철학적으로 사유하기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행위는 시간을 잠시 멈춰 세웁니다. 끝없이 흐르는 시간의 한 부분을 현재로 삼아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에도 기억할 만한 것들을 헤아려보게 합니다. 한 기업의 출범을 기념하는 일도 다르지 않아 그동안의 성과를 살피고 더 좋은 성과와 미래를 다짐합니다. 이번 전시는 기념할 과거를 회고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견고하게 구축된 구조와 시간을 지닌 기업을 다양한 관계와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변화를 거듭하는 상태에 놓여있음을 드러내는 지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전시 제목인 'Staging'은 '무대 연출'로 번역되는 말로, 브뤼노 라투르가 어떤 존재가 공적으로 출현하게 되는 조건과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한 용어 'staging'을 차용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존재는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행위자와 조건이 만들어내는 상황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Staging》은 이러한 사유를 전시라는 매체와 연결 지어 행위자들과 그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가 가시화되는 무대가 되고자 합니다.



김태동, 2026



계열사 공장 현장의 산업 시설물을 살피며 전시를 위한 설치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이요나 작가.

예술의 대상으로 시도해 본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참여 작가인 김태동과 이요나에게 이수그룹의 30년 시간을 다루는 작품을 제안했습니다. 작가들은 이수화학 온산공장과 이수페타시스 대구공장의 현장을 살피고, 계열사 구성원들이 사용하던 물품과 기계, 실험 과정을 기록한 노트, 공장의 건립 과정을 담은 사진 등을 모아 작품의 출발점이자 재료로 삼았습니다.

물성에서 도출한 감성과 사유의 요소

전시장 중앙에 위치한 이요나의 작품은 스테인리스스틸 파이프와 이수화학, 이수페타시스, 이수건설, 이수앱지스와 같은 이수그룹의 여러 계열사에서 모은 물품으로 이루어진 설치 작업입니다. 이요나의 작업에서 파이프는 열차나 버스 등과 같은 전 세계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움직임에 개입하거나 시계와 램프 같은 일상의 사물과 연결되어 공적/사적 공간의 경계를 흐리는 요소이자 이동과 연결을 상기시키는 요소로 작동해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사용된 파이프는 주변에 자리한 김태동의 공장 사진에 찍힌 배관과 연결되어 산업 재료로서의 인상을 표출합니다. 동시에 파이프 구조물은 공장에서 사용되는 팔레트, 폐기계와 장비, 실험도구와 작업복, 명패와 청소도구 등을 떠받치고 있는 좌대이자 안쪽에 자리한 사다리를 통해 여러 행위가 시간이 겹쳐있는 물품을 만날 수 있는 아카이브 저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공장 설비, 비인간 주체의 여정으로 다시 보기

김태동은 이수화학 공장이 건설되는 과정과 초기 모습을 담은 사진과 최근 공장을 방문해 촬영한 사진을 동시에 배치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공장의 설비 중 하나인 핸드휠을 돌리고 있는 근로자의 사진을 함께 배치해, 단순히 이수화학 공장의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공장을 가동하는 근로자의 행위와 수많은 손을 거치고 회전을 반복했을 핸드휠의 시간을 감각하게 합니다.

또한, 이수페타시스에서 생산되는 PCB(인쇄회로기판) 제조 과정을 담은 작품도 선보입니다. 김태동은 PCB 제조 과정을 PCB가 세상에 등장하기까지의 여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자기기 내부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관계를 형성해온 PCB는 또 다른 비인간 행위자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시 오픈일에 관람하고 있는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오른쪽 부타)과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





이요나, 2026

산업현장의 오브제, 시각 너머 멀티로 감각하기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기념비적 스케일을 보여주는 설치 작업은 관람자를 사다리로 이끌고, 기업을 이루는 요소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사소하거나 일상적인 물품을 바라보게 하며 위계를 혼듭니다. 이는 선형적 시간이나 수직적 구조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기업이 근로자와 그들의 물품, 과거의 기술과 기계, 그리고 기억과 경험까지 서로 얽혀 형성된 네트워크임을 드러냅니다.

김태동과 이요나의 작품이 배치된 무대인 <<Staging>>이 행하는 기법은 라투르가 사건(event)이라고 말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만나 서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끊임없이 목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무대가 펼쳐지는 동안 작품과 관람자는 서로를 마주하며 변형되고,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된 한 기업의 네트워크와 연결되며 예기치 못한 관계의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김태동

김태동(b. 1978)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 사진에 재현되는 새로운 시간성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와 그 주변부를 탐색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공간, 역사·사회적 맥락 등에 주목한 다양한 사진 실험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인천아트 플랫폼, 뮤지엄한미 등 국내 미술관을 비롯하여 하라미술관(도쿄), MFA(휴스턴), 호주전쟁기념관, 스미스미술관(매사추세츠), Fotofest(휴스턴) 등 해외의 다양한 미술관과 기관에서 전시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우사진상, SKOPF, 아마도사진상 등 수상, 작품집으로 『Day Break/Break Days』, 『PLANETES』 등이 있습니다.



이요나

이요나(b. 1986)는 오克兰드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 테이블 위의 오브제부터 미술관 전체의 공간과 건물 내 외부 표면을 점유하는 설치 작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조각을 만듭니다. 도시의 기반 시설을 비롯해 공공, 상업, 주거 공간 속 실용적인 사물의 미학과 물성을 탐구하며 이를 여러 크기의 조형으로 확장합니다. 그의 작업은 미니멀리즘 또는 맥시멀리즘, 공격적이거나 유희적인, 권위주의적이거나 유토피아적인, 실용적이거나 무의미한, 장소 특정적이거나 자기 충족적인, 구조 혹은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오克兰드미술관(2022), 더니든공공미술관(2020), 웰링턴시립미술관(2018-2019),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미술관(2018-2019)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이외에도 부산비엔날레(2020), 리옹비엔날레(2019), 창원조각비엔날레(2016) 등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수화학

소통과 공감의 전 사원 교육 실시



이수화학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6주에 걸쳐 경주 강동리조트에서 전 사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조직 내 심리적 안전감을 형성하고, 변화에 강한 실행력을 갖춘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공감과 강점 발견, 공동의 목표, 심리적 안전감, 변화 실행 등을 주제로 임직원 간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교육 중 진행된 경영현황 설명회에서는 2025년 경영현황을 돌아보고 2026년 방향성을 공유하며, 임직원들이 다시 한번 회사의 목표와 비전을 함께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

2026 인터배터리 참여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인터배터리'에 참가해 전고체 배터리 핵심소재 황화리튬(Li₂S)을 선보였습니다. 인터배터리는 2013년 첫 개최 이후 국내외 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대표 전시회로,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산업 전문 전시회입니다. 셀·모듈 기업뿐만 아니라 소재·장비·부품 기업까지 전 밸류체인이 집결하는 행사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공급망 전략을 동시에 가능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글로벌 배터리 기업을 포함 약 700개사가 참가했습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이번 전시에서 현재 Demo Plant에서 생산 중인 제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수페타시스

5공장 건설공사 현장 안전지원제 실시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1월 대구 본사에서 5공장 증축 공사의 안전한 진행과 무재해 완공을 기원하는 안전지원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수페타시스와 이수건설의 경영진과 주요 관계자 및 협력사 임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 구성원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현장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며, 5공장 증축이 향후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적인 공사 추진과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수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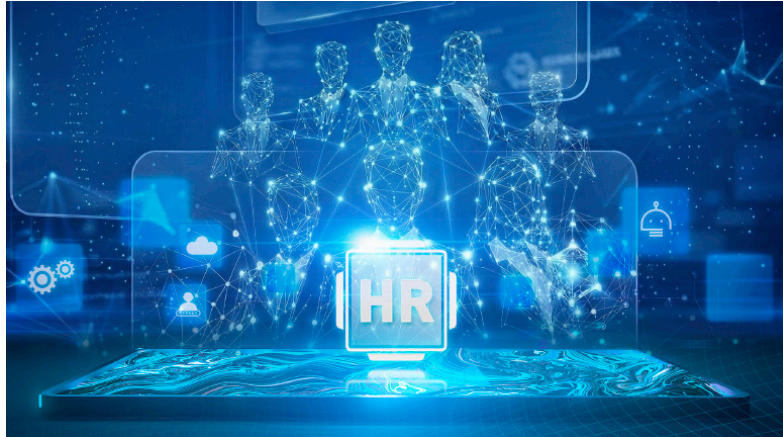
마곡 SH 현장 방문



이수건설은 지난 2월 26일 김학봉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10-2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것으로 총 10개동 577세대, 연면적 26,223평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고품격 주거 공간을 완성하기 위하여 최종 품질 점검 및 단지 내 조경공사 등 마무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학봉 대표이사는 직접 현장을 순회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임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에 오민석 현장소장 이하 전 직원은 원가 목표 달성, 무재해 현장 실행, 공기내 준공, 최고의 품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수시스템

그룹 HR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 진행



이수시스템은 지난 3월 23일부터 인사관리 환경 개선과 임직원 중심의 HR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그룹 HR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용자 경험(Employee Experience, EX)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직원 스스로 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셀프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능동적인 인사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관적인 UI/UX를 적용해 별도 학습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HR 데이터를 연계해 인재 분석 등 AI 기반 업무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11월 22일까지 진행되며, 10월 중 가오픈 예정입니다.

이수앱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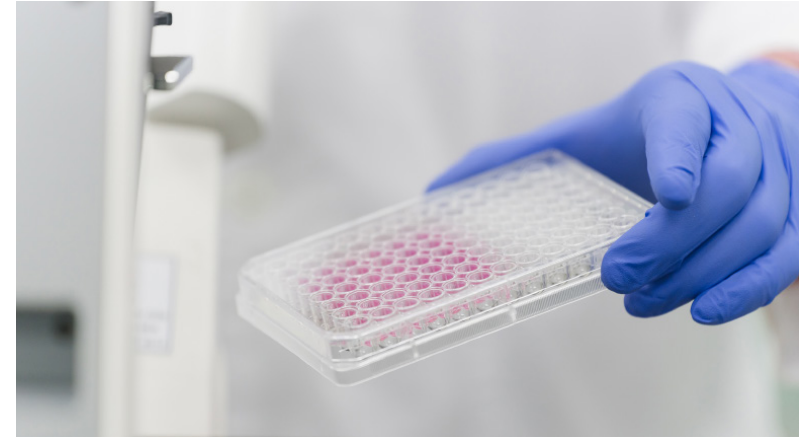
갤럭시와 협업, AI 기반 차세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본격화



이수앱지스는 지난 2월 9일 AI 신약개발기업 갤럭시와의 협업을 통해 차세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양사는 지난해 11월 공동연구 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며 협업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공동연구는 이수앱지스의 전주기 신약개발 경험과 갤럭시의 AI 기반 단백질 설계 및 최적화 기술을 결합한 전략적 협업입니다. 이수앱지스는 애브서틴, 파바갈 등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왔습니다. 갤럭시는 AI 기반 단백질 설계 및 최적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AI 기반 기술을 활용한 후보물질 발굴 및 최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차세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앱지스

'ISU305' 러시아 품목 허가 획득, 라이선스 아웃 성과



이수앱지스는 지난 1월 20일 러시아 제약사 파마신테즈(JSC PharmsynteZ-Nord)에 기술 수출(L/O)한 'ISU305'가 러시아 보건당국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ISU305'는 PNH(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인 '솔리리스(성분명:에쿨리주맙, Eculizumab)'의 바이오시밀러로, 2020년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임상 1상을 완료한 후 파마신테즈에 기술 수출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후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품목 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수앱지스는 이번 품목 허가에 따라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를 수령할 예정이며, 향후 판매 실적에 연동된 로열티도 확보하게 됩니다.

이수A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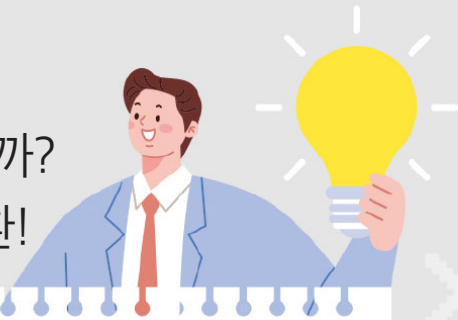
올해 첫 수주, 한천중학교 증축공사



이수AMC는 지난 1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발주한 '한천중 급식실·학생식당 및 개방형 도서관 증축공사'를 올해 첫 수주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학생들의 이용 편의성과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한천중학교에서 진행되며, 지상 2층, 연면적 877.70㎡ 규모로 공사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수AMC 장주의 대표이사는 "교육 시설 공사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품질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QUIZ

나도 혹시 천재일까? 뇌섹 이수인 소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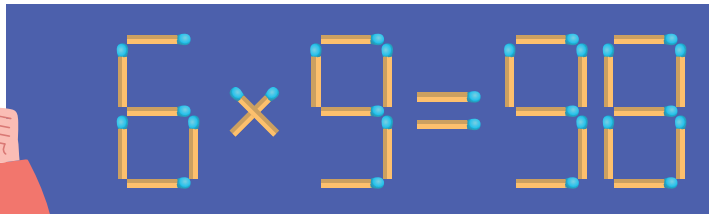
Q 1

왼쪽의 다섯 자리 숫자와 오른쪽 숫자 사이에는 특별한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앞선 예시들을 통해 수식이 성립하는 원리를 추론해 보세요. 그렇다면, 마지막 28686이 가리킬 숫자는 무엇일까요?

- 78925 = 10
- 68993 = 14
- 22558 = 12
- 12345 = 6
- 99773 = 0
- 81818 = 24
- 28686 = ?

Q 2

성냥개비 3개를 제거하여 올바른 수식을 완성하세요. 단, 기호와 등호는 유지하며 숫자에서만 제거합니다.



신년호 정답



A 논리 퀴즈 정답

Quiz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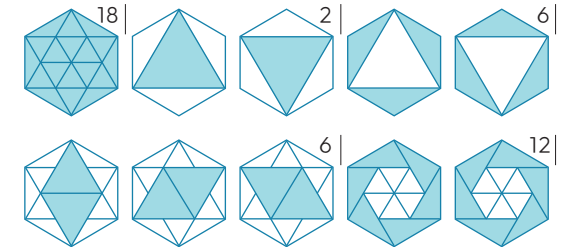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 1~0까지 순서대로 반복됩니다. 23 다음은 4와 5가 모여 두 자리 수여야 하기에 45입니다.

정답: 45

Quiz2

크기별로 1칸(18개), 9칸(2개), 3칸(6개), 4칸(6개), 2칸(12개)의 삼각형이 숨어 있습니다.

정답: 44



A 추리 퀴즈 정답

Quiz3 갤러리 '비밀 금고 비밀번호' 사건

- 숫자 조합: 윌리엄(최대 9)과 조나단(최소 4, 합 20)의 단서를 종합하면 숫자 조합은 (4, 7, 9)가 됩니다.
- 비밀번호 확정: 로라의 단서(내림차순, 가운데 7)를 적용하면 배열은 974가 됩니다.
- 범인 확인: '4'는 짝수이므로, "모두 홀수"라고 주장한 제니퍼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정답: 비밀번호 974 / 거짓말쟁이(범인) 제니퍼



- 강혜진 선임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영업2팀)
- 김호진 수석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전자재료사업팀)
- 신민경 선임 (이수시스템 HR서비스팀)
- 심현석 수석 ((주)이수 기획팀)
- 진예림 선임 (이수시스템 HR서비스팀)

30주년 기념 케이크 ‘한 조각의 진실’



그룹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리허설로 분주했던 오후, 행사장 한쪽에 보관되어 있던 임원용 기념 케이크 중 한 조각이 사라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남은 포크 자국과 생크림 문은 티슈로 보아, 누군가가 상태를 확인하려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벌인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은 단 5명.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케이크를 먹지 않았어!” 그리고 단서 규칙! 이 중 오직 단 한 사람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바로 케이크를 몰래 맛본 주인공입니다!

- 현장 단서**
- 케이크 옆 접시: 포크 자국 1개
 - 휴지통: 생크림이 묻은 티슈 1장
 - 회의 기록: 19:00~19:20 회의 참석자 명단 존재 (김과장, 정대리 포함)



김과장
(총무팀)

“저는 19시부터 계속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정대리도 저와 계속 함께 있었으니 절대 범인이 아닙니다.”



이대리
(인사팀)

“케이크를 보긴 했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박차장님도 드시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박차장
(영업팀)

“저는 케이크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리 역시 케이크를 먹지 않았습니다.”



정대리
(재무팀)

“저도 케이크를 먹지 않았습니다. 김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계속 회의실에 같이 있었습니다.”



최과장
(기획팀)

“저는 케이크 상태를 확인하러 잠깐 들렀을 뿐, 절대 먹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아채셨나요? 이번에도 탐정이 밝혀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문제) 케이크를 맛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수인의 브레인 체조 <이수터지니어스>의 퀴즈를 풀어보세요.
Q1~3을 모두 맞힌 분 중 선착순 5분께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sinew@isu.co.kr (퀴즈 응모 마감: 6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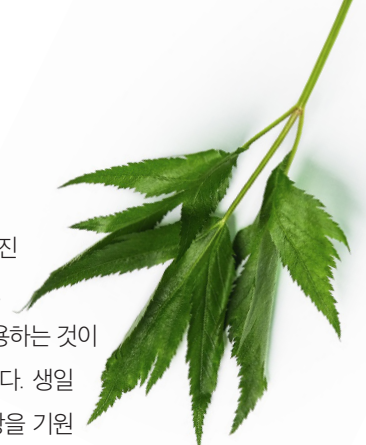
맛으로 누리는 꽃다발 생일상에 오른 떡

쌀이 있으므로, 살아있으므로 밥이 있고
떡이 있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밥으로는 몸과 뜻이 자랐고
떡으로는 맘과 정이 여물었습니다.
생일에 나누는 떡은 존재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 주인공을 향한 기도이며 응원일 터.
오늘 생일을 맞은 그대 앞에 놓인 떡
처음 입맛을 소환하는 맛있는 꽃다발이기를!!



매화 꽃다발 케이크 (동명상련)

이수그룹 출범 3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호로 꾸민
이번 이수 테이블은
스토리셰프가 마련한 축하의 식탁입니다.



어른의 생일 떡, 승검초편

승검초편은 우리 전통 떡 중 하나로, 흔히 당귀로 알려진 승검초의 잎에서 즙이나 가루를 취해 만든 떡입니다. 오늘날 승검초는 뿌리를 약용으로, 잎을 쌈 채소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거에는 식재료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생일 등 특별한 날에 승검초편을 먹는 전통은, 이 떡이 건강을 기원하고 장수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루나 즙 형태로 떡 반죽에 넣으면 짙은 초록색을 띠고, 산뜻하며 씹싸름한 향이 납니다. 승검초를 활용하여 단자, 설기, 절편, 승편 등에 두루 응용하며 대표적으로 승검초편, 승검초주악이 있습니다.

시의전서(是議全書)에 승검초편 만드는 법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멥쌀가루에 꿀물 진히 타서 가루에 버무려 도톰이로 쳐서 승검초 가루 섞어 안치되 쪄 두께와 고명은 꿀편과 같으니라. <꿀편>은 쪄를 매우 두껍게 하고 고명은 대추 밤 채쳐 자욱이 뿌리고 실백 흠어 쓰라.

한편 서울 경기지방에서도 초록색의 승검초편, 갈색의 꿀편, 흰 백편 등 세 가지 편을 각 색편 또는 갖은편이라 불렀으며 1800년대 말 연안이씨 부인이 쓴 요리서 주식시의(酒食是儀)에 기록이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고품격 시루떡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전통 혼례상이나 환갑, 칠순 등 어른의 잔치에 빠지지 않아 장수와 평안을 축복하는 상징적인 떡이었습니다.



<시의전서>
조선 후기 식생활을 다룬 문헌.
음식을 조리법에 따라 분류,
정리하여 편찬된 조리서.



각색편 (고물 대신 밤, 대추, 잣, 석이버섯 등의 다양한 색색의 고명을 얹어 정성스레 쪄낸 화려하고 기품 있는 떡)

전통과 현대의 절충, 떡케이크

전통적으로 아이의 생일에는 잘 자라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생일마다 떡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전 세대를 아울러 베이커리 케이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백설기, 수수팥떡, 인절미, 승검초편 등 가족과 생일 당사자의 기호에 따라 떡을 쓰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전통과 현대의 감각을 절충한 떡케이크로 맛과 비주얼을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떡케이크는 떡의 쫄깃 식감과 케이크의 화려함이 결합되어, 어른의 생신이나 특별한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떡케이크 시장은 건강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미적 감각과 맛을 결합한 신개념 디저트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과 건강, 개성 있는 선물을 선호하는 20~4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떡으로 변장한 꽃, 주악 - 고품격 디저트

문헌에는 조약전, 조각병이라 기록된 주악(朱岳)은 여러 색깔로 물을 들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든 식후 병과조. 회갑이나 혼례 때 축하용 대형 떡 차림의 장식용인 웃기떡으로 모양이 예쁘고 아기자기합니다. 찹쌀가루를 꿀에 반죽하여 깨소나 팔소를 넣어 송편처럼 빛은 다음 기름에 튀겨 만드는데 가장 귀한 손님의 접대에 반드시 올렸으며 떡 중에서 으뜸으로 여겼습니다. 튀긴 찹쌀떡을 꿀에 담근 듯 쫄득+꾸덕+달콤 조합을 이미 조선시대에 구현한 디저트로 특히 궁중이나 양반가에서 경사에 올리던 격조 있는 후식이었습니다. 후식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미각의 정점-겉바 속쫄-에 목직하고 고급스러운 단맛을 품어 좋은 대접 후의 마무리로 근사합니다.



개성 주악 (달콤한 조청 속 찹쌀의 고소함, 생강 집침의 깊은 어운을 주는 개성지역의 대표 떡)

쌀로 빚은 꽃다발 - 통과의례와 떡

식이위천(食以爲天), 먹는 것이 절 중하다는 1차원적 풀이를 넘어 먹는 일에 하는 섬기듯 하는 마음가짐과 숙연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 말은 먹거리의 물성 그 너머의 가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전통적으로 떡은 단순한 음식만이 아니라 액운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상징을 품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국면을 무탈하게 넘기기를 기원하며 음식을 차려 하늘과 땅에 고하는 의미가 굳어지면서 떡은 더욱 선명하게 문화적인 코드를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한 사람의 교육엔 동네가 필요하다 믿었습니다. 성장 과정 중요한 때마다 이웃과 떡을 나누었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웃들의 축하는 부모 못지않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염원을 더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식 교육을 이웃이 함께 한다는 선한 믿음으로 나누는 떡이었습니다.

백일 | 생후 100일째 되는 날 나누는 두 종류의 떡으로 백설기는 순수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수수경단은 액을 막아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백 사람이 나누어야 아기가 무병장수한다는 속설로 많은 이웃과 나눴습니다.

첫돌 | 태어나서 일 년이 되는 날, 아기의 장수와 복을 기원하며 찬란한 의복을 만들어 입히고 첫돌 상을 차립니다. 이때 준비하는 떡으로 액막이용 수수경단, 신성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백설기, 끈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인절미, 오행(五行), 오덕(五德), 오미(五味)와 함께 우주 만물과 조화를 염원하는 오색송편이 있습니다.



백일 수수경단



첫돌 백설기

(출처: 동병상련)



책례 오색송편



책례 매화송편



혼례 봉치떡 (떡박물관)

책례 | 책거리, 책씻이라고도 하며 아이가 서당에서 책을 마치면 학문에 정진을 바라며 속 채운 오색송편, 교만과 편협을 경계하고 비우라는 뜻의 속 비운 매화송편으로 채움과 비움의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떡과 함께 여름에는 국수, 겨울에는 떡국으로 의례상을 차려 냅니다.

성년례 | 남자의 경우 상투를 트는 관례, 여자의 경우 쪽을 찌어 올리고 비녀를 꽂는 계례라고 하여 15세 전후에 성년례를 치렀습니다. 어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 주는 의례로 떡과 다식, 약과 등 음식과 처음 술을 대접하는 주안상으로 축하했습니다.

혼례 |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러 단계의 절차마다 의미가 담긴 떡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찹쌀 시루떡인 봉치떡(봉채떡)입니다. 찹쌀은 부부의 금실이 찰떡처럼 화목하게 되라는 뜻이며, 붉은 팔고물은 약귀를 물리치고 자손 번창의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 달떡, 색떡, 인절미, 절편 등이 있습니다.

회갑연 | 60회 생일을 회갑(환갑), 59세 생일은 '육순', 회갑 직후의 생일은 진갑이라 하여 다른 생일보다 크게 차립니다. 회갑의 큰 상차림은 음식을 높이 쌓아 '고배상'이라 하며 가장 화려하고 성대합니다. 떡은 백편, 승검초편, 꿀편을 네모진 편틀에 높이 권 후 화전이나 주악, 단자 등으로 웃기를 엮어 아름답게 장식한 고임떡을 올립니다.



고배상의 고임떡

(출처: 동병상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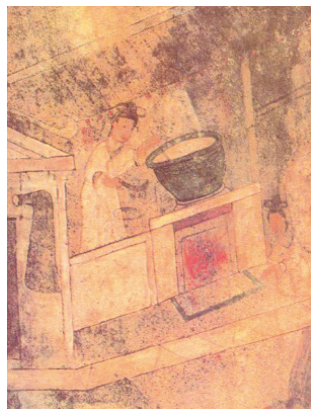
농경문화와 함께 해온 떡

살농사 문화권 어디든 밥과 떡이 있었습니다. 밥은 가족을 지켰고 떡은 마을을 마을답게 했습니다. 떡 만드는 손길은 결코 내 식구 입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나누며 안녕과 무탈을 빌어주는 유대가 단단했습니다. 이 집 밭일 저 집 논일, 서로 손 보태던 농경시대에는 사람의 힘만으로 어찌 못하는 영역에 하늘의 도움을 청하는 의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의례에는 밥과는 차원이 다른 품을 들인 떡이 필수였습니다.

한반도에 정착한 떡

떡은 곡식 가루를 반죽하여 찌거나, 찌서 치거나, 물에 삶거나, 기름에 지져서 만든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찌다'의 동사에서 명사(찌기→떼기→떠기→떡)로 어원이 변한 것입니다. '떡'이라는 한글은 1800년대 「규합총서」에 등장하며 이전에는 병[餅], 고[糕/饀], 편[飴] 등은 모두 떡을 뜻하는 한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청동기와 철기 시대 유적에서 시루, 갈돌, 갈판 등 떡 만드는 도구가 발견되고, 고구려 고분인 황해도 안악 3호분 벽화에 시루가 있는 점으로 보아 우리 민족이 떡을 먹기 시작한 것은 농경사회가 시작된 시기로 추측합니다.

중국에서는 삼국(220~280) 시대부터 맷돌의 일종인 연자매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그 무렵부터 떡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밀로 만든 떡을 병(餅), 밀가루 이외의 곡물로 만든 떡을 이(餌)라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rice cake이라 쓰지만 한류 이래 고유명사 떡teok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 황해도 안악 3호분 벽화>
(출처: 전통 속에 살아 숨 쉬는 첨단 과학 이야기)

떡과 관련된 옛 문헌의 기록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이사금과 석탈해가 떡을 깨물어 잇자국이 많은 쪽이 왕이 되기로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떡망이 높으면 치아가 많다는 속설 때문이죠. 또한 고구려의 산상왕이 주도한 제사에서 상에 올리려던 돼지가 달아났는데 후녀라는 여인이 떡으로 껴 잡아온 일을 계기로 왕비가 되고 동천왕을 낳게 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떡이 발달하여 <지봉유설>, <해동역사>, <목은집> 등에서는 현존하는 다양한 떡들이 언급됩니다.

조선시대 궁중에는 '다소반과'와 '다별반과'라는 수라상의 후식을 위해 생과, 전과, 다식, 등 별식(別食)을 만드는 생과방이 있었으며 유교 사회 특유의 각종 의례와 행사로 떡의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허균의 음식품평서인 <도문대작>을 비롯해 <음식지미방>, <조선세시기> 등 조리서에 등장하는 떡의 종류만 무려 198가지에 이르며 일반 서민층에도 널리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남선이 쓴 <조선상식문답>에는 농사가 시작되는 음력 2월 1일 머슴절에 대보름에 세워두었던 벼를 찢어 빗은 송편을 머슴의 나이 숫자만큼 먹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일에 먹는 떡

일본 | 모치(떡)는 찹쌀가루를 찢어 만든 떡입니다. 생일뿐 아니라 다양한 축제와 명절, 새해에 많이 먹습니다. 생일 케이크 대용으로 '모치 케이크'가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중국 | 지역별로 다양한 떡이 존재하며 대부분 찹쌀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니엔가오는 찹쌀가루와 설탕, 대추 등을 넣어 만든 찰진 떡이며 생일이나 설날에 먹습니다. '높은 떡'이라는 뜻으로, 높이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장수와 번영을 기원하는 음식입니다.

태국 | 카우니아우 마무앙은 찹쌀을 사용한 디저트로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찰밥에 망고와 코코넛, 밀크를 곁들인 떡으로 생일이나 경축 행사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라오스 | 카오놈납은 우리의 송편과 유사하나 속이 매우 달고 코코넛 가루로 고물을 입혀 바나나 잎에 싸 찰떡입니다.



중국 니엔가오 (Nian Gao) 태국 카우니아우 마무앙 (Khao Niao Mamuang) 라오스 카오놈납 (Khao Nom Nap)

(출처: 동병상련 ddock.co.kr / nanyangkitchen.co / silkroadrecipes.com / craftstocrumbs.com / 창억떡집 changeok.co.kr)



창억떡 호박인절미 (진한 호박 풍미와 포슬포슬한 카스텔라 고물이 어우러진 현대식 인절미)

세대를 잇고 세계를 품는 떡의 끈끈한 변주

떡의 미덕은 단연 식감입니다. 세계적으로 상하 어금니 사이에 일어나는 찰나의 힘겨움에 가장 예민하게 매료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동남아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쌀의 아무지고 쫄쫄한 찰기 덕에 멍쌀 절편과 찹쌀 인절미가 품은 텍스처, 그 쫄깃과 쫄득의 디테일은 극강이죠. 그 지존한 가치를 츄이(chewy)나 스티키(sticky)로 일축하며 "낮설다"라지만 "거북해"로 해석되는 영어권의 반응은 수천 년 밀가루 주식의 유전자를 장착한 서양인들에게 결코 스밀 톱 없던 떡이었습니다.

BTS와 케데헌(K-Pop Demon Hunters) 등장 이후의 양상은 드라마틱 하게 달라졌습니다. 이 현상에 불을 붙인 최초의 방아쇠는 떡볶이의 공이 혁혁합니다. 한국 떡의 해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떡 수출도 해마다 증가해 2024년 9,140만 달러(약 1,400억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에서 인절미, 찹쌀떡, 떡케이크 등 전통 떡뿐 아니라 현대적 해석을 입힌 다양한 디지털 떡 제품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특히 MZ 세대는 물론 Z 세대와 알파 세대까지 약과, 한과, 주악을 포함한 떡 중심의 디저트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최근 화제가 된 창억떡의 호박인절미는 터미널 택배 서비스마저 동이 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요인은 레트로(retro) 감성과 할매니얼(Halmennial=할머니+밀레니얼) 트렌드에 따라 건강한 재료에 대한 지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곧 내 존재의 확장!이라는 시대적 문화현상에 있습니다.

단순한 전통 음식을 넘어 힙한 문화 아이콘으로 거듭난 우리 떡. 이제 떡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서로 다른 취향과 문화를 가장 끈끈하게 잇고 있습니다.

이수그룹의 서른 번째 생일을 맞아, 떡의 세계를 통해 오감을 한 뼉 확장해 본 이수 테이블. 세대와 문화를 잇는 떡처럼, 끊임없이 진화하는 모든 이들에게 갓 썬넌 따끈한 운기를 전합니다.

눈코입을 사로잡는 간식 서프라이즈



일하다가 당이 뚝 떨어지는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정답은 바로! 한 템포 쉬며 일할 맛 나게 에너지를 채워주는
이수 간식 창고의 깜짝 간식 선물이죠!

그럼, 다음 서프라이즈 간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두구 두구 두구... 바로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팀입니다!

<우리 팀이 간식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재치 있게
샤라웃(shout out)해주세요.
푸짐하고 맛있는 간식 선물이 여러분의 자리로 배달됩니다 :D

이수그룹 전 계열사 부서 및 팀의 간식 신청 사연을 기다립니다. (접수기간: 5월 20일까지, 발표: 5월 말)
우리 팀 자량과 함께 '간식이 필요한 이유와 치킨, 피자, 커피 음료 등 '원하는 메뉴'를 사연에 담아 신청해 주세요.
당선된 사연 및 사진, 간식 후기가 실릴 예정입니다. 보내실 곳 | 이메일 : sinew@isu.co.kr

2026년 신년호
당선 후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팀에게 쏘세요!!



이수앱지스
중앙팀
김삿별 대리



저희 팀 아이디어 뱅커들과 함께 소통의 분위기와 창의력 펌프질을 도와준 간식

최근 그룹사에서 진행된 캐릭터 이름 공모전을 계기로 저희 팀은 업무 외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희 팀원들이 응모한 이름이 여러 개 본선에 진출했고, 그중 운이 좋게도 제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팀 전체가 함께 설레고 뿌듯했었습니다. 공모전을 위해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룹사의 조직 문화와 캐릭터가 담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밀도 있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아졌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평소에는 바빠서 길게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팀 분위기도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저희 팀의 아이디어 뱅커들을 자랑도 할 겸, 공모전을 통해 만들어진 분위기를 모두와 함께 더 즐겁게 이어가고자 간식을 신청했는데 명~당첨이네요!!! 🤩 이번에 충전한 에너지로, 앞으로도 그룹사의 가치를 빛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멈추지 않고 뽐어내는 '짠' 아이디어 뱅커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모전도 긴장하세요! 🤖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에게 쏘세요!!



**이수앱지스
면역팀**

서주연 사원



**신규 입사자 & 복직한 과장님까지 완전체가 된 면역팀,
소중한 추억, 기분 좋은 선물!**

저는 이수앱지스 면역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5기 공채 신입사원입니다. 첫 직장이라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운 와중 팀원들께서 잘 챙겨 주신 덕분에 빠르게 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셔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신입사원으로서 선배님들께 받은 도움에 보답할 방법을 찾던 중, 간식 이벤트에 신청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팀원분들과 간식을 나누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간식이 배달되었을 때 모든 팀원들이 환호하며 좋아하는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저희 면역팀에는 지난 11월부터 저를 포함한 신규 입사자 3분이 합류했고, 휴직 중이시던 과장님께서도 최근 복직하셨고요. 게다가 곧이어 과장님 한 분께서 출산 휴가 예정이라 잠시 자리를 비우시기 전, 완전체가 된 우리 팀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응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던 기분 좋은 선물이었답니다. 😊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김상현 기선
(이수페타시스 품질관리팀)



노기성 담당
(이수앱지스 관리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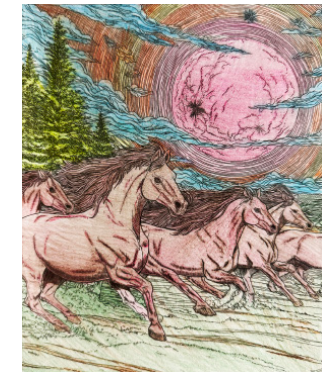
노명훈 수석
(이수화학 제품연구2파트)



양희교 기선
(이수페타시스 품질관리팀)



여지관 수석
(이수스페셜티케미컬 계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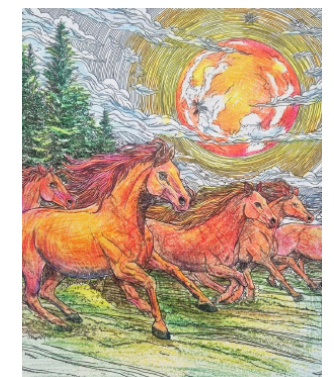
유태하 기선
(이수페타시스 생산팀)



전성훈 기선
(이수페타시스 생산2팀)



정석원 차장
(이수건설 시흥하중내)



조재덕 차장
(이수건설 정일석산탱크현장)

이수가족을 위한 아트 힐링 컬러링 테라피

컬러링 북은 선으로 그린 그림이나 도안을 모아 엮은 책으로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원하는 색깔로 그림을 채워가노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려 정서적인 안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보 <ISU>는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선사할 컬러링 코너를 연재합니다. 컬러링을 마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 방법

01



컬러링을 한다

02



인증샷을 찍는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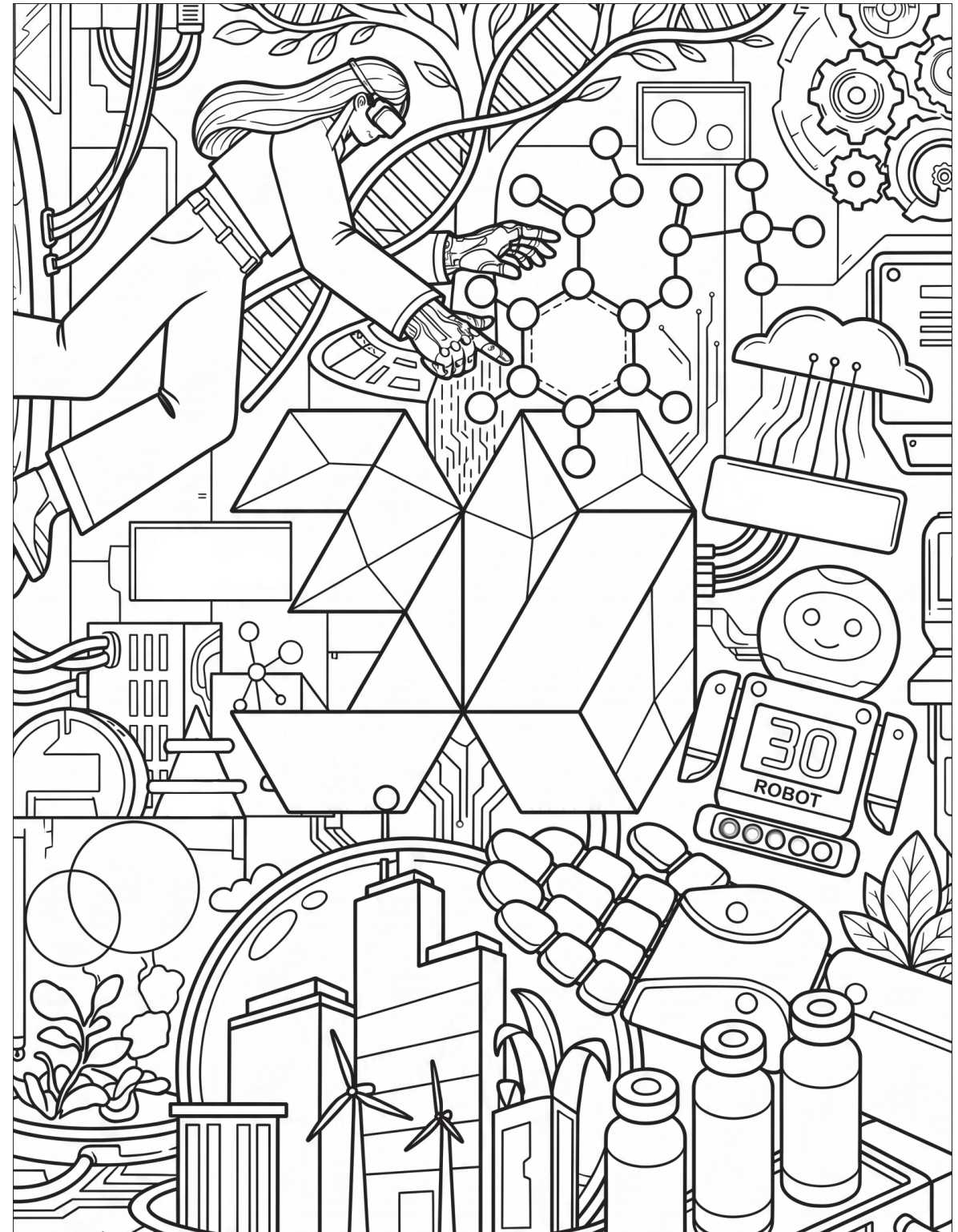
사진을 전송한다

보내실 곳 | 이메일 : sinew@isu.co.kr

2026년 신년호 당첨자 (※가나다순)

- 김상현 기선(이수페타시스 품질관리팀)
- 노기성 담당(이수앱지스 관리담당)
- 노명훈 수석(이수화학 제품연구2파트)
- 양희교 기선(이수페타시스 품질관리팀)
- 여지관 수석(이수스페셜티케미컬 계전파트)
- 유태하 기선(이수페타시스 생산1팀)
- 전성훈 기선(이수페타시스 생산2팀)
- 정석원 차장(이수건설 시흥하중NH)
- 조재덕 차장(이수건설 정일석산탱크현장)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여름호 원고 마감은 6월 15일입니다.



※ 상기 일러스트는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다음 시대를 여는 혁신의 중심>으로 시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30년,
우리의 역사는 언제나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이름들과 함께,
이수의 다음 30년도 이어가겠습니다.

